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저자를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	추천 책의 출판사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개인회원	고운힐스작은도서관	김새봄	선향한 차별주의	창비	김지혜	인간의 이중적인면을 잘 보여주며, 예전부터 이슈였고, 여전히 이슈가되는 인종차별, 동성애, 다문화등이 관련된 주제들이 다뤄지고있다.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사회적문제들을 우리아이들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경기북부지부	강릉공원작은도서관	김희정	작은 너의 힘	비글스쿨	조영권 글, 방양희 그림	"자연에서는 어느 생물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생물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중 자체가 사라지면 결국 자신이 쓸 곳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박은진	3분철학	카시오메아	김재훈, 서창숙	아이들이 쉽게 철학을 접할 수 있는 책 입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박은진	퀵템	한빛비즈	로랑 세페르	아이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책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박은진	찾아냈어요 북작북작 서울에 시	위즈덤하우스	백조은,이연우	아이들이 주변을 한번 더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책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정희	세상의 모든 전통	이솝아이	김해니	우리가 몰랐던 지구 곳곳에 60가지 무형문화재를 멋진 일러스트와 함께 보여줍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전통을 지키는 아름답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서울동부지부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김여숙	나는 화성탐사로봇 오퍼튜니	만만한 책방	이현	오퍼튜니티를 아끼는 과학자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서울동부지부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김여숙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오티다리	이사벨 마리노프	항상 머리 속에 떠오르던 생각을 놓치지 않은 허블의 전기가 감동적이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충청지부	내보물1호도서관	백영숙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키다리	정연숙 글 / 김고동 그림	그동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억과 이야기가 쌓였을까요.						
							서울역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9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어린이들에	대구지부	해복작은도서관	이수미	온조왕,백제를 세우다	한국 퍼블릭	원작 김부식 글 구들	비류는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요. "미추홀은 서해 바로 옆에 있는 곳이야. 고구려 사람 중에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 나는 넓고 시원한 바다가 마음에 들어. 그곳에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어. 비류의 말을 들은 온조는 걱정이 됐어요." 비류 형님 바다 옆이라면 소금기 때문에 땅이 매우 거칠것입니다. 그런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개인회원	개인회원	김진희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휴머니스트	경향신문 전자기획팀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때 명함이 없었다. 이 책 속 여자들처럼, 진짜 '일'을 하는 여자들의 담당함에 허리가 속 떠진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경기남부지부	에기동봉도서관	한은희	간에 울고, 똥에 웃고	토개성	정재은	연극으로 배우는 우리고전 편으로 아이들 버전 별주부전이다. 제목이 매력적이고, 웃음을 지어내는 감동이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왔으면 그만이지	도서출판 피플파워	김주환	똥은 모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흩어버리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똥도 이와 같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충청지부	가재마을10단지 작은도서관	정지안	푸른사자 와니니	창비	이현	"나는 내가 편하던 싸움을 했으니 스스로의 왕이다."						